

2개 룰 마련... 전남대 총장선거 본격 시동

직선·간선제 두가지 방안 공개... 조교들도 첫 투표권 주목

이달말까지 최종안 마련후 내달 중순 교수 총투표로 결정

전남대가 올 해 예정된 차기 총장을 어떻게 뽑을 지 가능할 수 있는 선출 방식이 공개됐다. 총장 후보들의 분주한 물밑 행보와 맞물려 차기 총장을 뽑는 '룰'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대 안팎에서 총장 직선제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선출 방식으로 결정될 지도 조미의 관심사다.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지컴퓨터공학부 교수)는 2일 '총장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관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2개의 '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총장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발족, 전남대 총장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교수회 주도로 마련한 2개의 선출 방식은 직선·간선제로 나뉘며 직선제의 경우 대학 구성원 참여 폭을 크게 넓혔다는 게 골자다.

기존 교수들 위주의 투표 방식이 아니라 직원·학생 뿐 아니라 조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 대학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게 교수회 입장이다. 구성원별 참여 비율은 현재까지 유동적으로 이달 말까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다만, 이날 열린 대학 평의원회 동계세미나 등 대학 안팎에서는 교수(85%)·직원(12%)·조교·학생(3%) 수준의 비율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껏 조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남대는 파악하고 있다.

대학구성원 및 교수들 사이에서는 직선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립대 총장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교수회와 '총장선거제도 특별위원회'의 고심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 지원을 내세워 '총장 간선제 선출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압박과 대학 자율성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다.

간선제 선출방식은 1차 정책평가단과 2차 정책평가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선, 5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설 경우 교수·직원 200명으로 구성된 가칭 정책평가단을 꾸리고 후보별 공약 검증·서류 심사·토론회 등을 거쳐 5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 2차 정책평가단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후 2차 정책 평가를 진행, 최종 후보자를 가려내자는 방안이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는 대표성과 자율성 확보를 내세워 위원회에 ▲교수 71%

▲직원 13% ▲외부위원 10% ▲조교·학생 5% 등의 비율로 60명을 참여시킨다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 총장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외부인사 대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75%~90%)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에 고한 점을 감안, 향후 비율 조정과 위원회 인원 수 확대 등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

전남대 교수회 등은 2개의 선출 방식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친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오는 3월 9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3월 중순 교수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 뒤 대학측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학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정병석 전 법대학장, 정성창 전 융합인재교육원장,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병택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방관 수난시대

광주 안전사고 3년간 42건...폭행 피해도 크게 늘어

소방 및 구급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하는 소방관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활동 중 매 맞는 소방관도 잇따라 광주시소방본부가 직접 사건을 조사,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관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4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9건, 2014년 12건, 2015년 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안전사고는 구급활동(18건), 화재진압(4건), 구조활동(4건), 생활안전(1건), 교육훈련(1건), 출동대기(1건), 기타활동(11건) 과정에서 일어났다.

단순 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공상자 승인을 받은 소방관도 지난 2013년 3명, 2014년 2명이던 것이 지난해 13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화재진압(1건), 구조구급(7건), 생활안전(1건), 체력단련(4건), 기타활동(2건)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구급 활동 중 구조 요구자와 가

족 등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지난 2013년, 2014년 각각 1건이던 것이 지난해 4건으로 대폭 늘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을 위해 그간 경찰에 사건을 넘겼던 기존 방침을 바꿔 직접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소방관이 직접,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는 소방관을 줄이기 위해 사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구조활동 중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경찰에 넘기거나 선처를 배웠던 기존 방침을 바꿔 올해부터는 특사권을 가진 소방관이 직접,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중 인 소방관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의 경우 소방기본법(16조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술자리서 여경 성추행 의혹

경찰 간부 직위해제·조사

40대 경찰 간부가 술자리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간부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경찰서 소속 A(47)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9일 밤 10시30분께 여수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여·30) 경사의 차마를 들켰다. 이들은 인사발령 후 회식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이제 고등학생 돼요” 2일 발표한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동아여고로 배정된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예비소집을 갖고 학교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나영기기자 mjna@kwangju.co.kr

경찰 TF 구성 '데이트 폭력' 엄단

광주·전남 지난해 469건

한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광주 모 의학전문대학원생 A(33)씨는 지난해 3월 28일 새벽 3시10분께 광주시 남구에 사는 여자친구 B(31)씨의 집에 찾아가 2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남자친구가 휘두른 주먹과 발로 온몸을 구타당한 B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

었다. A씨가 한밤중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 같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인 B씨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자신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이 연인 사이 갈등 과정에서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3일 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 데이트 폭력이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돼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자칫 방심할 경

우 강력범죄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2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연인 간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연인 간 폭력 사건은 총 24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상해 76건, 폭행 122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20건, 살인 2건, 강간·강제추행 22건으로 조사됐다. 2014년의 경우 총 279건, 2013년 295건, 2012년 336건, 2011년 281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지난해 상해 85건, 폭행 82건, 폭처법 위반 40건, 살인 1건, 강간·강제추행

19건 등 총 227건이 적발됐다.

2014년의 경우 191건, 2013년은 271건, 2012년 274건, 2011년 258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부 간 폭력을 가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과거와 달리 엄정대처한 반면,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보고 실제 피해가 일어난 뒤에야 개입하는 등 예방적, 피해자 보호적 관점에서는 다소 소홀했다. 그러나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부서간 협업을 통해 각 경찰서에 TF팀을 꾸리고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형호기자 khh@

'의붓딸 물고문' 중국인 계모 2심도 징역 1년

물고문 등으로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이 징역형으로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정영)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여성 A(45)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 수차례 의붓딸을 폭행했고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가정에 복귀하면 재범 가능성

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와 남편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의붓딸이 작성한 일기장과 이웃의 증언에 근거해 학대가 있었다고 봤다.

A씨는 2011~2014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살하려고 말하며 의붓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가 하면 욕조 물속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하고, 아이의 얼굴을 이유도 없이 겹겹이 찢거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열거적인 방법으로 의붓딸을 학대해 충격을 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꾸 돈 잃어..." 성인오락실 게임기 수습대 망치로 '쌍광'



○...자꾸 돈을 잃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성인오락실 게임기 수습대를 망치로 때려 부순 50대가 경찰서행.

○...2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임모(54)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 인근 한 성인오락실

에서 망치로 게임기 53대를 부수 63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몇 달 전부터 이 오락실을 자주 드나든 임씨를 근무자 임씨는 이날 술에 취해 망치로 게임기를 부수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난다"라며 횡설수설. /김정민기자 kki@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2천만원

월산동, 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방풍, 배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용 6천5백만원포함)

싸고 좋은 물건

주인직매 H.010-3605-5000

보성, 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와5필지
- 26286평(13만평중 1/5지분)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3천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경매, 낙찰물건 매매

- ▶사건번호 - 2015타경1564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광산리 732-1번지
- ▶감정가/시세-14억5천만원
- ▶낙찰가-7억3천만원(입찰4명)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 지상4층
- ▶1층-음식점 및 숙박시설, 2~4층-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현재 휴업상태
- ▶유치권해결, 명도완료,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요양원 등등 모든 용도 가능
- ▶대출-6억 3천만원 확정,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가-협의
- ▶문의-(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 ▶주인 직매함
- H.010-3605-5000